2026. 1. 19

금융 Weekly Insight

美 금융주 규제 우려는 제한적. 업황 강세에 따른 실적 개선에 주목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 리서치센터 금융/소비재팀
2026년 1월 셋째 주

김재우 팀장, Senior Analyst jaewoo.kim@samsung.com
정민기 Analyst mingi.jeong@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 IT 중심으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KOSPI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 금융업종은 여전히 증권주가 9%의 견조한 주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은행과 보험업종은 2% 수준 상승에 그침
- 증권주는 증시 지속 강세에 따른 자산 평가익 강세 가능성 등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 반면, 은행은 미국 은행들의 이자율 상한 규제 이슈가 부각되며 부담으로 작용, 한편 보험은 기본자본 비율 등 자본 규제 확정되며 관망세 지속
- 이자 수익 스프레드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증시 및 자본시장 호조에 따라 비이자수익 수수료 또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규제 관련 단기 노이즈보다는 업황 사이클 개선 및 증시 호황에 대한 익스포저를 고려한 종목군에 긍정적 관점 접근 필요.

금융 Overview

- 은행 – 양호했던 미국 은행 실적. 그러나 카드 이자율 상한 규제가 찬물: 은행주는 1.9% 소폭 상승. 미국 은행들의 4Q 실적은 양호했고, 이들이 제시한 26년 실적 가이던스는 이자이익 중심의 견조한 실적 개선을 시사함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 특히, 이들 은행은 올해 ROTCE의 개선과 더불어 CET-1 비율의 하향 조정을 통한 성장과 주주환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계획임을 시사. 하지만, 이러한 실적 시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주는 큰 폭의 조정을 거쳤는데, 이는 미국 카드 이자율 10% 상한 규제 우려에 기인. 다만, 해당 우려가 현실화될 여지는 낮은데, 이와 같은 가격 규제는 금융사들의 카드 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소비 위축, 경기에 대한 부담 야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즉, 이와 같은 우려보다는, 미국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은행들 또한 26년 중 업황 사이클 개선과 더불어 주주환원 강화 기조의 지속에 따른 Valuation 디스카운트 축소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초점 필요.
- 증권 – 전주 증권주는 9.1% 상승하며 KOSPI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양호한 실적 흐름을 시현하였음. 1월 들어 일간거래대금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브로커리지 지표가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보유 고유 자산 투자분에 대한 평가차익 기대감이 연일 상승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해외 IB 또한 자산 가격 상승 및 증권 거래 증가 등에 따라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업황 방향성 자체가 긍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음. 4분기 계절성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미 1분기 및 26년 실적 호조의 가능성으로 옮겨간 상황으로 판단하며, 증시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증권 업종의 선호도 또한 지속될 것으로 판단.
- 보험 – 전주 보험주는 w-w 2.6% 상승하였으나, KOSPI 지수 대비로는 언더퍼폼 하였음.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의 기업 지분 인수 루머 언론 보도에 따른 주가 상승 이벤트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주가 변동은 없었던 한 주로 평가. 보험업종의 경우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기본자본비율 기준치를 확정하였으며 하한선(50%) 및 자본증권 조기상환 기준(80%) 등을 감안 시, 배당 차원에서의 유의미한 수준의 증가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또한 주가 상승을 제한하였음. 보험사의 경우 4분기 실적이 2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계절성 및 최근 손해율 악화 트렌드에 따라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실적 시즌 이후 불확실성 해소에 초점을 두어야할 국면으로 판단.

1.1 지난주 주요 뉴스 점검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12) 12월 은행 전세대출도 역대급으로 감소** - 1월 12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2.6조원으로 25년 10월 말 대비 0.9조원 감소. 해당 대출 잔액은 25년 9월 감소세로 전환 후 꾸준히 감소세 시현 중인데 10.15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매물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 -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월 10일 기준 27.7% y-y 감소하였고 전세수급지수는 104.6으로 7.1 포인트 상승. 참고로 해당 지수는 100을 상회 시 수요가 공급을 상회함을 의미. - 은행권은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전세매물 감소에 당국도 전세대출 증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논리. - 다만, 전세난과 월세화 가속에 대한 비판 증가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	**전세대출 감소세 지속 전망:** 올해도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행들은 보다 선별적으로 대출 성장에 접근할 것으로 전망. 이에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RoRWA가 높은 자산을 위주로 늘릴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관점에서 전세대출과 주담대 중 은행들은 LTV가 낮아 대손 위험이 크게 낮은 주담대가 보다 매력적인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세의 월세화에 대한 고민은 필요:** 다만, 전세의 월세화에 대한 고민은 필요. 물론,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과거 은행 중심의 주택 금융이 태동하기 전 발생한 특이한 주거 형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점차 그 비중이 낮아질 여지가 높다고 판단. 그러나, 문제는 속도. 주거 비용 입장에서 볼 때, 전세보다는 월세가 더 부담이 큰 만큼, 가파른 월세화는 자칫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 가능. 이는 내수 경기 부양이 필요한 현재의 국내 경제 환경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 가능.
	(1/12) 해외 송금 규제 완화 - 인터넷 은행 고객 유치 경쟁 심화 - 올해부터 해외송금 제도가 완화. 당초 증빙 없이 5천 달러 이상 해외 송금 시 지정거래은행 한 곳을 통해 송금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여러 은행 및 송금 업체를 통해 연 10만 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 지정 거래 은행제도 폐지로 송금 수수료나 혜택, 기능 등을 비교해 고객들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송금이 가능해진 것. - 이에 인터넷은행들을 중심으로 송금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 이들은 실시간 송금 현황 확인, 정보 자동 입력, 누적 금액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 차별화를 추구.	**해외 송금 - 그 자체로 수익이라기보다는 고객 확보가 핵심:** 해외 송금은 실제로 은행 입장에서는 소위 큰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님. 이는 해외 송금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 요인 등에 기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해당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고객 확보에 있는 것으로 판단. 즉, 보다 거액의 현금을 해외로 보낼 유인이 있는 개인들은 1)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이거나, 2) 개인사업자 등의 지위를 지닌 만큼 추가적인 부수 거래가 발생할 여력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 **결국 관건은 Cross selling:** 결국 은행들의 입장에서 송금 고객 확보와 관련된 관건은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Cross selling의 확대가 될 전망. 가령, 고액 자산가 고객의 유입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혹은 중장기적으로 자산관리 영업의 강화 등이 대표적 Cross selling 강화의 사례 및 효과가 될 것으로 판단.
	(1/13) 지방은행과 인뱅간의 공동대출 강화 - SME 및 SOHO까지 - 재경부가 9일 발표한 2026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지역금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과 인뱅간 공동대출 강화 계획이 제시. 기존에는 개인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공동대출을 SME와 SOHO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시행 예정. - 이와 관련 관건은 그간 인뱅들이 요구해온 대면 업무가 공동대출의 형태로 가능할지가 될 것. 다만, 인뱅들은 이제 논의가 시작된 만큼, 향후 당국의 추진 방향에 맞춰 준비,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언급.	**공동대출 강화 - 성장에는 긍정적:** 공동대출 대상을 SME 및 SOHO로 확대하는 것은 성장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특히 지방은행들은 플랫폼의 부족을, 인터넷은행은 자본 혹은 관련 대출 취급 관련 노하우를 상호 보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다만, 관건은 리스크 관리:** 다만, 관건은 리스크 관리. 인터넷은행 입장에서 SOHO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출이고, SME는 여전히 고객 기반 및 오프라인 인프라 부족으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 즉, 원론적으로 전통 은행과의 협력은 인뱅들의 부족한 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판단. 즉, 해당 정책 도입이 인터넷은행들의 갑작스러운 대출 급증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일정 검증 시간을 거쳐 성장률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은행	**(1/14) 은행권 예금금리 다시 3% 아래로 하향** - 지난 해 말 3%대를 웃돌았던 은행들의 수신 금리가 재차 하향 조정. KB와 하나은행은 예금금리를 2.8%로, NH는 2.95%로 인하하며 3% 아래로 낮아진 것. - 업계에서는 이의 이유로 연초 효과를 지목. 즉, 연초 기관투자자들이 새해 들어 신규 자금을 집행함에 따라 채권 시장에 매수 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채권 금리 하락을 야기. 일례로, 은행채 금리는 12월 2.8~2.9%에서 현재 2.725%까지 하락. -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높은 수신금리 유지 명목이 소멸.	**4Q 예금금리 상승 - 일종의 계절적 현상:** 은행들의 4Q 예금금리 상승은 계절적 현상으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는 해당 언론 보도에 언급된 바와 같은 채권 시장 연초 효과와 더불어 은행들의 연말 비율 관리 부담, 과거 레고랜드 사태 후 4Q 중 고금리 예금 만기 도래의 반복 등에 기인. 이는 반대로 1Q 중 조달금리 하향 안정화 무게: 이는 은행들의 조달금리가 1Q들어 하향 안정화될 여지가 큰 것으로 해석 가능. 특히, 지난 해 말 급격한 예금금리 상승이 은행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키웠던 만큼, 긍정적으로 평가. **시장금리가 향후 관건:** 한편 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최근 하락한 시중금리의 하향 안정화 지속 가능성이 향후 관건. 은행들은 4Q 중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이전대비 저조할 것으로 예상. 이는 반대로 금리가 하향안정화될 경우, 관련 비이자이익은 1Q 중 재차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 더 나아가, 이에 따른 회사채 시장의 회복이 뒷받침될 경우, 은행들은 RWA 관리에도 보다 입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1/14) 미국 카드 이자율 연 10% 상한 요구 - 금융주 주가 하락 - 미국 대통령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연 10%로 제한하라고 요구. 이와 같은 입장을 11일에도 재차 강조함에 따라 12일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들은 큰 폭의 주가 하락 시현. - WSJ에 따르면 미국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은 23% 수준으로 19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연 10%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다고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가계부담 완화 부각 조치로 해석. - 반면, 은행과 카드사들로 구성된 전자 결제 연합은 해당 규제 적용 시, 현재 개설된 신용카드 계좌의 82~88%가 폐쇄되거나 사용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발표.	**규제 현실화 시 단순히 은행 실적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중론:** 해당 규제와 관련한 질의 응답이 은행들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진행. 주요 은행들의 최고 경영진의 답변은 다소 조심스러웠으나, 결국 이는 신용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여파는 단순히 금융이 아닌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으며, 과거 카터 행정부의 금융 규제도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으로 인해 2개월만에 중단되었던 경험이 있었음을 강조. **증시는 해당 악재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소화하고 가지만...:** 결국 증시는 은행주들이 재차 반등세를 보이며 해당 악재를 일부 소화하고 가는 것으로 해석 가능. 다만, 이러한 규제를 야기했던 요인인 중간선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 필요.
	(1/15) 금융당국 26년 가계대출 총량 설정 착수 - 2% 초반 증가율 유력 보도 - 금융당국이 최근 각 금융사에 26년 가계대출 관리 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수치 취합에 나섰음. 즉, 26년 가계대출 총량 한도 설정 작업에 착수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2월 점검 회의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언급. - 지난 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2.3%를 기록.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고. 이에 올해는 가계대출 총량 한도 설정이 2%대 초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제기. - 해당 한도가 설정된 이후 은행들은 성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도. 일례로, 5대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담대 금리는 4.454%로 여전히 높은 상황.	**가계대출 관리강화 기조 지속 - 은행들도 가계대출 증가 메리트 전년대비 위축:** 해당 언론은 올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 해보다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언급. 참고로, 은행들도 전년대비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메리트가 축소. 이는 자본비율 부담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올해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치가 높은 기업대출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또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 **한도 설정되더라도 급격한 경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 즉, 가계대출 한도가 결정되더라도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성장 경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더 나아가, 금융당국 또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보다 짧게 하여 강화할 계획인 점도 고려 필요.

(다음 페이지에 계속)

Sector	News	Implication
증권	**(1/12) "연초 절세 개미 잡아"...ISA, 연금 수수료 경쟁 나선 증권사들** -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에 제동을 걸자, 업계의 마케팅이 ISA와 연금 상품으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 - 미래에셋증권은 ISA, 연금저축계좌의 비대면 상품 주식 거래 수수료 우대 혜택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였으며, 삼성, KB, 신한 등 다수 증권사들이 수수료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음. - 증권사들은 연초 ISA 만기 자금 이동 시즌 도래에 따른 관련 이벤트 다수 발생이라고 설명	**해외 → 국내로 마케팅 경쟁 점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관련 마케팅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식 타겟으로 한 프로모션 강화가 관찰되고 있는 모습. 1월 들어 일중 거래대금이 50조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증시는 유례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회사별 장기 고객을 락인할 수 있는 ISA, 연금 계좌 확보에 대한 니즈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보험	**(1/13) 늦어지는 5세대 실손…금융당국, 보험사 막판 진통 속 올 4월 출시 가닥** - 연초 예정됐던 5세대 실손보험 출시가 연기된 가운데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막판 조율을 거쳐 올 4월 출시로 가닥 - 이처럼 예상보다 5세대 실손 출시 시기가 늦어진 건 비급여 자기부담률 등 일부 개정안에 대한 당국과 보험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기인. - 한편, 기존 가입자의 상품을 보험사가 매입하는 '계약 재매입'제도 또한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신세대 실손 보험 출시에 따른 보험사 영향의 효과는 장기간 시간을 두고 반영될 것:**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 5세대 실손 출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 기사에서 언급된 바로는 연내 4월중 출시가 예상되고 있음. 다만, 실제 5세대 실손 출시 이후에도 유의미한 보험사 별 손해율 및 손익 개선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 이는 1) 계약재매입 제도가 논의되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5세대 실손의로의 전환이 '선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실제 수요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고, 2) 이전 신실손(3~4세대)의 사례를 고려할 때, 신상품 출시에도 여전히 100% 이상의 높은 손해율을 시현하였기 때문.
	(1/13) 2027년부터 기본킥스 50% 밑돌면 적기시정조치 - 내년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이 50%를 밑돈 보험사는 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예정 -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보험사는 증자 같은 재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국은 이에 대해 최대 35년까지 9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 한편,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할 때에도 80%의 킥스 규제가 적용	**보험사 별 부담은 소폭 완화, 본질적인 배당 불확실성은 잔존:** 기본자본 킥스 도입안이 확정되었음. 금번 도입안에서는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적립 인정 비율을 인상(80% -> 100%)하면서 보험사 별 기본자본 비율 부담을 소폭 완화되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판단의 핵심인 배당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기존 배당을 지급하지 못했던 보험사들의 경우, 1) 여전히 기본자본비율이 80%를 하회하고 있고, 2) 해약환급금준비금 산식 개정이라는 본질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1. 2 금주의 주요 Event check

Sector	국내	해외
2026-01-19 (월)	금감원,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미국 증시 휴장
		유로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확정치
		일본 11월 핵심기계류수주
		일본 11월 산업생산(수정치)
		일본 11월 3차산업지수
		중국 12월 실업률
		중국 12월 주택가격지수
		중국 4분기 GDP
		중국 12월 산업생산
		중국 12월 고정자산투자
		중국 12월 소매판매
		중국 12월 외국인 직접 투자
2026-01-20 (화)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미국 주간 ADP취업자 변동
		유로존 11월 경상수지
		독일 1월 ZEW 경기기대지수
		독일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영국 11월 실업률
		중국 1월 대출우대금리(LPR) 발표
2026-01-21 (수)		미국 12월 잠정주택판매지수
		미국 주간 MBA 모기지 신청건수
		미국 20년 만기 국채 입찰
		영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영국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
2026-01-22 (목)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미국 10, 11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출
		미국 3분기 GDP 확정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미국 주간 원유재고
		미국 1월 캔자스 연준 제조업지수
		미국 10년 만기 국채(TIPS) 입찰
		영국 12월 공공부문 순차입/순상환
		일본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2026-01-23 (금)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미국 1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미국 1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
		미국 주간 원유 채굴장비 수
		유로존 1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독일 1월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1월 CIPS / 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합성 PMI 예비치
		영국 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영국 12월 소매판매
		일본 정기국회
		일본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일본 1월 제조업·서비스업 PMI 예비치
		일본 일본은행(BOJ) 전망 보고서

자료: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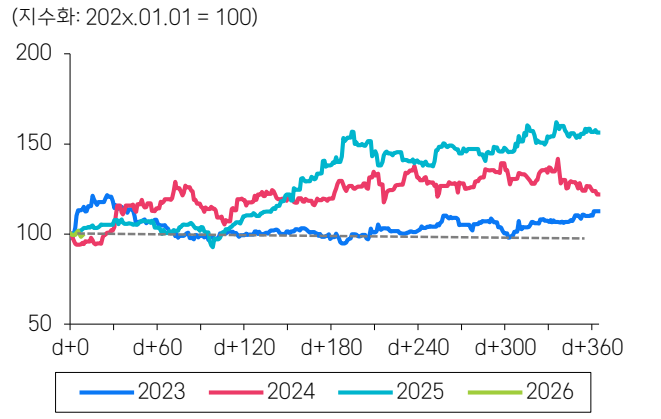
1.3 주가 Performance

업종	종목	시가총액	주가	2026E					주가 Performance (%)			
				주주 환원율	PBR	ROE	PER	EPS Growth				
		(조원)	(원)	(%)	(배)	(%)	(배)	(%)	1W	1M	1Y	YTD
지수	코스피	3,881.2	4,840.7						5.5%	19.3%	91.5%	14.9%
	KRX은행	174.1	1,320.0						1.9%	2.3%	51.0%	1.2%
	KRX증권	61.0	1,767.3						9.1%	19.1%	133.0%	15.5%
	KRX보험	80.3	2,623.2						2.6%	(0.6%)	38.8%	(2.0%)
	결제 지수**	1.256	n/a						(3.5%)	(4.6%)	38.0%	(4.3%)
은행	KB금융	49.9	130,900	55.4	0.8	10.7	7.6	8.0	3.4%	5.3%	44.8%	5.0%
	신한지주	38.5	79,200	50.6	0.7	10.3	6.8	9.5	1.8%	3.7%	57.5%	3.0%
	하나금융지주	26.8	96,400	49.6	0.6	10.4	6.2	8.1	3.8%	3.9%	65.9%	2.4%
	우리금융지주	20.5	27,900	41.4	0.6	10.4	6.0	6.3	2.2%	0.7%	79.3%	(0.4%)
	기업은행	16.3	20,500	33.2	0.5	8.6	6.3	-0.6	0.5%	(1.9%)	39.0%	(2.1%)
	BNK금융지주	4.6	14,940	44.4	0.4	8.5	5.1	9.1	(2.4%)	(5.1%)	29.1%	(5.9%)
	JB금융지주	4.5	23,950	39.3	0.4	9.3	4.6	8.8	(2.4%)	(3.4%)	31.2%	(6.6%)
	iM금융지주	2.3	14,110	45.0	0.8	13.1	6.0	9.0	(2.6%)	(3.2%)	59.1%	(9.3%)
	카카오뱅크	10.2	21,350	50.0	1.4	7.1	20.3	7.8	(1.2%)	0.5%	0.9%	(1.2%)
증권	미래에셋증권	17.7	31,200	54.7	1.0	8.4	12.0	-11.3	15.1%	52.6%	281.4%	33.6%
	NH투자증권	8.1	22,650	54.5	0.9	9.4	9.3	-8.6	8.6%	9.2%	64.0%	7.3%
	한국금융지주	10.2	182,700	21.8	0.8	12.9	6.8	-25.5	7.2%	15.9%	138.5%	13.0%
	키움증권	8.8	330,000	29.0	1.1	17.2	7.1	5.2	4.8%	19.3%	171.6%	14.0%
보험	메리츠금융지주	18.5	105,400	49.9	1.6	24.4	7.0	8.8	3.8%	(3.6%)	(5.2%)	(6.8%)
	삼성화재	22.4	486,500	41.1	1.2	12.4	9.5	12.8	3.5%	(1.1%)	31.5%	(2.1%)
	삼성생명	34.1	170,600	45.0	0.6	5.3	12.1	4.1	7.0%	11.1%	86.9%	8.2%
	DB손해보험	8.8	123,800	28.7	1.0	19.2	5.2	15.6	0.2%	(1.6%)	29.5%	(5.6%)
	한화생명	2.8	3,225	16.4	0.2	5.6	4.1	37.8	4.7%	(0.3%)	28.5%	(0.9%)
	현대해상	2.4	26,800	11.7	0.5	17.5	2.9	18.3	(1.7%)	(12.0%)	3.1%	(13.0%)
결제	카카오페이	6.6	48,600	n/a	n/a	0.0	0.0	0.0	(1.3%)	8.2%	79.7%	(1.0%)
	NHN KCP	0.6	14,520	n/a	n/a	0.0	10.7	17,970.1	(3.9%)	(0.9%)	97.6%	(2.6%)
	KG이니시스	0.3	9,790	n/a	n/a	0.0	-0.1	28,369.8	(1.8%)	(8.4%)	10.4%	(4.2%)
	KG모빌리언스	0.2	4,485	n/a	n/a	0.0	22.1	38,567.1	(1.0%)	(8.1%)	(7.8%)	(4.6%)
	나이스정보통신	0.2	23,300	n/a	n/a	0.0	7.5	5,741.9	(6.2%)	(6.2%)	30.4%	(8.1%)

참고: 1/16 종가 기준
*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카카오페이 제외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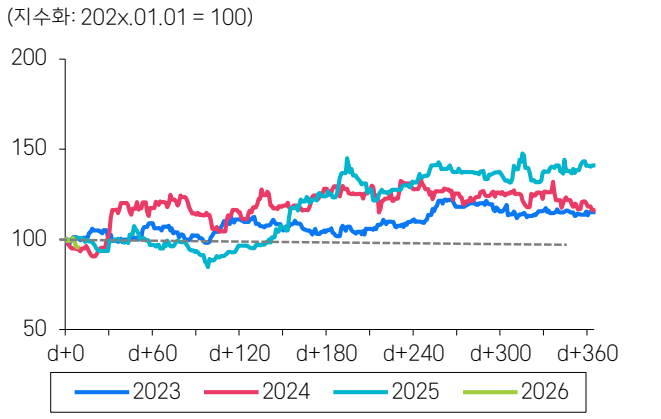
1.4 주가추이 - At a glance

은행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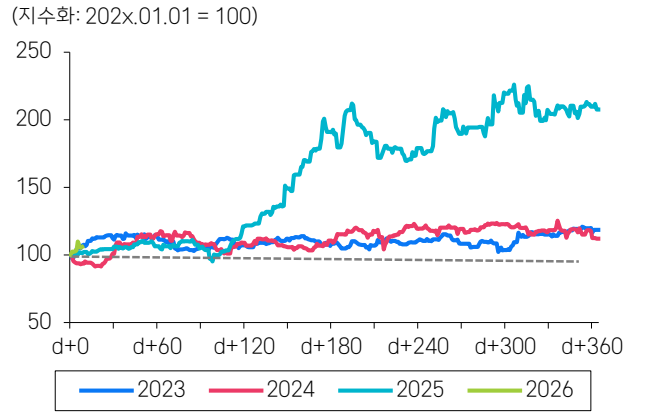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보험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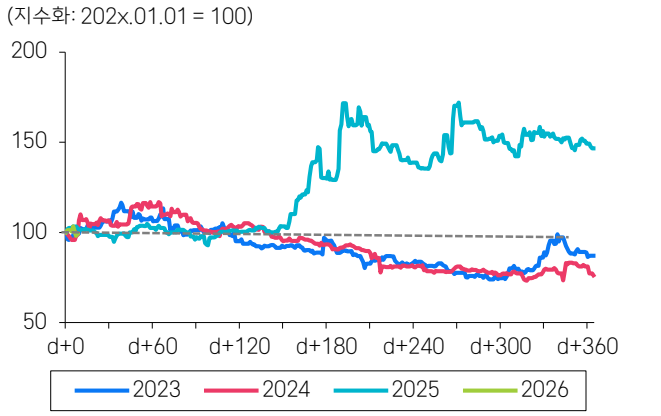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증권 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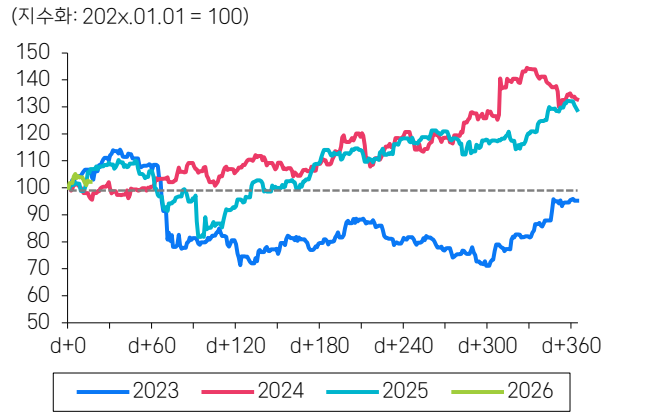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결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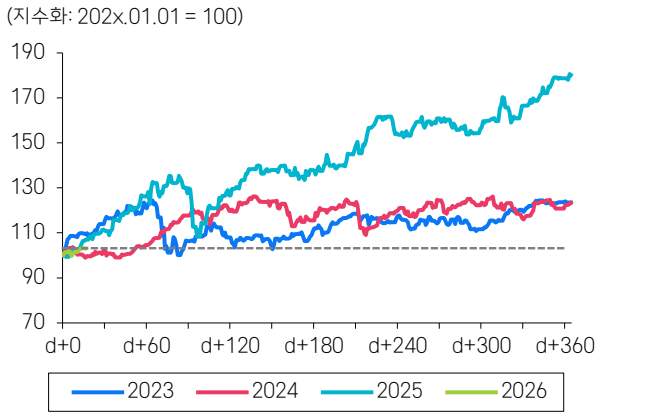
참고: 당사 커버리지하 기업 시가총액 합산 기준
자료: Quantiwise, 삼성증권

미국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유럽 은행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5 해외 Peer 점검

Sector	지역	종목	시가총액 (USDb)	26E Valuation					주가 Performance			
				주주 환원율 (%)	PBR (배)	ROE (%)	PER (배)	EPS growth (%)	1W (%)	1M (%)	1Y (%)	YTD (%)
은행	미국	JP Morgan	842.5	85.1	2.3	16.3	14.6	6.6	(4.4)	(0.2)	20.6	(3.0)
		Bank of America	386.8	99.0	1.3	11.2	12.2	12.1	(4.8)	(2.4)	13.8	(3.7)
		Citigroup	211.2	119.5	1.0	9.1	11.6	45.8	(2.7)	4.6	47.6	1.2
		Wells Fargo	277.4	98.4	1.6	12.8	12.6	12.0	(6.3)	(3.4)	14.7	(5.2)
		PNC Financial	87.5	71.3	1.5	12.6	12.4	8.0	3.2	6.5	12.4	6.9
	유럽	Banco Santander	179.9	79.2	1.4	13.3	10.2	13.5	4.0	5.7	119.5	4.6
		Unicredit	131.5	85.8	1.6	16.7	9.9	5.3	3.2	3.1	71.0	2.4
		BBVA	139.0	92.9	1.9	18.5	10.4	9.9	5.4	5.9	102.7	4.5
		ING Group	85.0	81.4	1.4	13.0	10.9	12.1	4.7	5.4	58.8	5.0
		Lloyds	80.4	90.6	1.4	13.5	10.2	42.9	3.2	6.0	74.4	3.9
		Barclays	90.5	63.3	1.0	10.8	9.1	25.6	2.0	5.5	69.0	2.7
	일본	Mitsubishi UFJ FG	225.2	60.5	1.5	10.8	14.2	9.6	14.2	22.1	60.1	19.9
		Sumitomo Mitsui FG	137.7	55.0	1.3	10.6	12.7	8.4	7.9	12.1	48.8	11.6
		Mizuho FG	108.2	67.1	1.4	11.0	13.7	9.0	11.6	21.7	75.3	20.2
	중국	Industrial Commercial Bank of China	365.0	30.4*	0.5	8.9	6.2	1.9	3.4	3.8	29.1	1.0
		China Construction Bank	268.6	29.8*	0.6	9.5	6.0	1.6	2.8	4.5	30.1	1.8
		Agricultural Bank of China	352.2	31.2*	0.7	9.7	7.2	0.6	1.1	1.3	33.0	(3.8)
보험	미국	Berkshire Hathaway	1,067.4	N/A	1.4	6.3	21.3	(8.9)	(0.6)	(2.0)	5.4	(1.9)
		AIG	39.4	51.3	0.9	11.1	9.5	흑전	(5.4)	(15.4)	(2.9)	(14.8)
		Travelers Insurance	60.1	68.4	1.6	17.8	10.0	6.1	(4.9)	(8.3)	12.5	(7.1)
	유럽	Allianz	168.3	76.7	2.2	18.3	12.5	7.3	(1.1)	(2.3)	24.5	(2.5)
		AXA	95.4	59.5*	1.6	16.9	9.6	(2.8)	(2.6)	(4.7)	11.1	(4.1)
		Generalli	62.9	56.7*	1.6	14.2	11.4	11.3	(0.9)	(2.2)	18.3	(2.3)
	일본	Tokio Marine	74.1	44.1*	2.2	20.0	11.4	4.0	2.3	1.4	15.2	3.7
		Daiichi Life Insurance	33.2	50.7*	1.3	11.6	11.7	6.0	3.9	7.9	35.8	8.5
	중국	Ping An Insurance	167.0	33.4*	1.1	13.9	7.8	5.1	(3.4)	4.9	64.6	5.4
		China Life Insurance	172.4	19.2*	1.4	19.0	6.7	(14.5)	0.4	10.9	133.5	16.7
		PICC P&C Insurance	46.0	36.5*	1.1	15.0	7.8	1.1	(5.5)	(3.1)	36.3	(1.3)
증권	미국	Goldman Sachs	299.6	94.5	2.4	16.8	15.0	11.5	2.2	9.8	53.7	9.4
		Morgan Stanley	300.5	76.7	2.6	17.4	15.5	9.4	2.3	9.3	37.2	6.5
		Charles Schwab	189.8	91.2	3.7	21.5	18.6	19.1	1.9	6.8	35.9	3.9
		Robinhood	97.9	34.8	8.9	18.9	43.1	22.8	(7.0)	(7.2)	125.8	(3.9)
카드	미국	American Express	251.3	85.0	7.4	35.5	20.8	13.3	(3.6)	(2.9)	16.7	(1.4)
결제	미국	VISA	642.4	21.6*	14.7	67.6	22.8	13.2	(7.7)	(5.1)	2.7	(6.4)
		MasterCard	484.5	18.1*	44.1	203.3	28.4	16.5	(7.0)	(4.7)	2.8	(5.5)
		PayPal	53.2	6.3*	2.4	25.6	10.2	9.0	(2.8)	(4.3)	(38.0)	(2.6)
	유럽	Adyen	51.0	0*	6.6	22.3	33.5	21.9	(4.6)	1.1	(6.9)	1.3
핀테크	미국	Block	40.1	0*	1.6	8.7	22.3	19.5	(7.7)	2.4	(24.2)	1.3
		Upstart	4.7	0*	5.0	19.3	41.2	139.1	(4.4)	2.3	(23.6)	10.0
		Affirm	24.7	0*	5.0	13.8	46.1	68.1	(10.0)	(2.1)	28.9	0.4
	중국	LuFax	2.4	N/A	N/A	2.4	N/A	흑전	0.0	0.0	11.2	0.0

참고: Bloomberg 컨센서스 기준, 1/16 종가 기준
* 현금 배당성향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